

24.09.30.(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 3631 / Fax 02-6788-3629
김현국 국장 010-2581-2487 / 장정욱 선임비서관(박주민 의원실) 010-6788-5732

을을 위한 국정감사를 통해 5대 민생과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월)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4월 총선은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대과’ 총선, ‘사과’ 총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였습니다. 민생에 무관심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불러오고도 모르쇠와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세수 결손이 없을 것이라고, 우겼지만 결국 역대급 세수 결손을 불러왔습니다. 심지어 올해 4월 10일까지로 법률에 정해진 2023년 국가결산은 시한을 넘겨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몇 달 전 까지만 해도 정부는 작년과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약 30조의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경기둔화 여파로 법인세·종합소득세가 덜 걷혔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를 과소 평가하고, 지난해 3분기 기업 실적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꼽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능합니다. 예측은 실패했고, 경제는 위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역대급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반성도 민생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시기 관련 논란에도 불구하고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이어갔습니다. 균형재정을 하겠다면서도, 대규모 재정지출 공약을 쏟아내는 엇박자 선거쇼였습니다. 선거이후 9월까지 28번 민생토론회를 벌이고 있지만 진짜 민생은 없습니다. 정부의 무책임·무능력은 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을을 위한 진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결할 ‘5대 민생과제’로 ▲온라인플랫폼 ▲과로·기후질환사 ▲불공정갑질 ▲전세사기 ▲자영업부채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는 저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고, 정산기한을 단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정위가 제안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 신속한 조사와 처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배민, 쿠팡 모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자율규제 타령에 티메프 사태와 쿠팡의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배민의 수수료를 인상 등 독과점의 폐해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율규제 도그마에 갇힌 공정위를 규탄하고, 독과점 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아내고 중소기업, 소비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심각한 기후 변화와 과도한 노동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과로 기후 질환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보건 문제로, 변화하는 기후와 과도한 노동 강도 속에서 많은 노동자와 농어업인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과로 기후 질환사는 고온 및 고습 환경에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신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후 변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온고습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은 체온 조절 기능을 약화시키며, 열사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 강도로 인해 체력이 고갈되면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야간 근무와 교대 근무는 수면 부족과 면역력 저하를 유발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에 냉방 및 환기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외부 작업자의 경우 그늘과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로 기후 질환사는 단순히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위원회에 과로 기후질환사 대책반을 통해 과로 기후 질환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점검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가맹점 불공정 거래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 갑질을 바로잡고, 납품

대금 연동제 개선 등 부당한 하도급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매출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 물품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수익을 창출하는 가맹본부의 부도덕한 행태를 폭로하고, 공정위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전가하는 가맹 본사의 갑질을 바로잡고 수수료를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주요한 기술을 대기업에게 탈취당해 해당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보상받으려 해도 기술탈취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청, 중기부, 공정위 등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와 예외사항 악용방지, 부당특약 무효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처에 만연한 갑질의 실태를 알려 불공정을 바로잡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을 도모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공정화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적극 다루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수급불안과 가격변동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고통받지만 오직 농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만이 농산물가격에 비례한 수수료 수취로 이익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매법인 횡재이익체계를 지적하고 도매법인의 공적기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넷째, 22대 국회 최초의 여야 합의를 이뤄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쉽게도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던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피해지원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요건 확대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경매낙찰차익과 민간전세임대를 통한 임대주택 지원 등 나름의 진전을 얻었습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장에서 야기될 혼란에 대한 대비를 확인하고, 전세사기 추가 피해에 대한 예방, 나아가 전세제도의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개정된 법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사각지대 해소 및 추진체계 점검, ▲임대인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및 하자 보수 지원 등 피해자 지원 강화와 ▲전세대출과 보증제도 개선,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등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에 대한 정부의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분기 연속 10%를 상회하는 등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한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는 고금리의 다른 대출로 빚을 돌려막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부실화가 커질 경우, 금융기관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어 사회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중심의 대책만 지속되면서 자영업 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바,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 이자 및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 빠르고 원활한 폐업유도 및 재기 지원 ▲ 한계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실효성 제고 ▲ 채무액에 따른 채무관리 및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관리 강화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비활성화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에너지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채무조정프로그램 개선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과 신용회복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돌아보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乙’을 위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진짜 민생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을 위한 정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무능을 넘어 직접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고통받는 국민과 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참고] 기자회견 기획안

□ 취지

- 세계경제는 저성장 궤도에 진입, 실업률 상승과 같이 세계적인 침체국면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의도적 예산불용 등 경기침체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해 을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음
- 플랫폼 경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적절한 입법과 행정이 부족해 플랫폼사업자의 혁신을 유도하지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상황임.
- 노동환경의 변화로 노동도 양극화되어 있으며, 불안한 노동환경에 처한 플랫폼 노동자가 더 많은 노동과 극한의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있으며, 기후 위기로 인한 온열질환 등으로 많은 노동자가 희생당하고 있음
-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위한 진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국정감사를 하겠음. 을지로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해결할 ‘5대 민생과제’로 ▲온라인플랫폼 ▲과로·기후질환사 ▲불공정갑질 ▲전세사기 ▲자영업부채를 선정했음
- 을지로위원회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되어 국회의원과 을 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5개 민생과제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했음.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내에서 그리고 연관 상임위 위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5대 민생과제를 포함한 ‘乙’을 위한 민생과제를 해결하는 국정감사를 할 것임

□ 개요

- 일시 : 2024. 09. 30.(월) 오전 9시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진행순서

(사회자 : 박주민 위원장)

시간		내용	비고
9:40~9:42	2 ‘	- 참석자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9:42~9:52	10 ‘	5대 민생과제 국정감사 주요 추진 계획(2분) - 온라인 플랫폼 : 김남근 의원 - 과로·기후질환사 : 김운 의원 - 불공정갑질 : 이강일 의원 - 전세사기 : 염태영 의원 - 자영업부채 : 송재봉 의원	-
9:52~9:55	3 ‘	- 기자회견문 낭독 및 마무리	-